

인도 인문 포커스

India
Humanities
FOCUS

Vol.9

꼬치 대도시권(Kochi Metropolitan Area)의 공간변화

김영진

1. 들어가며

르페브르(Lefebvre)는 『공간의 생산』(1974)에서 ‘공간은 한 사회의 생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역사적 공간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및 신자본주의 사회는 ‘교통 및 정보처리의 연결망’, ‘물신숭배’ 등을 주요 특징으로 갖는다. 인도 케랄라(Kerala)주의 ‘상업 수도’인 꼬치 대도시권은 오늘날 빠른 공간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르페브르가 지적한 위의 두 특징들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흥미롭다.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이 2016년부터 케랄라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변화 속에서 자본주의 공간이 갖는 특징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꼬치 대도시권에서는 꼬치메트로(Kochi Metro), 코친스마트미션(Cochin Smart Mission, 이하 CSM), 스마트시티꼬치(SmartCity Kochi, 이하 SCK) 등의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교통 및 정보통신 연결망이 구축되고 있다. 한편 도심을 중심으로 거리풍경의 전면적인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이 도시에서 소비력이 급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도시의 인구 및 행정구역명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꼬치 대도시권의 인구는 2011년 기준 약 2.1백만을 기록한다. 이는 2001년의 1.5백만과 비교하였을 때 37.9%가 증가한 수치다. 2011년 꼬치 대도시권의 출산율이 1.82%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 도시의 인구증가에는 외부 인구의 유입이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빠른 인구증가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2021년 이 도시의 인구는 거의 3백만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꼬치 대도시권의 행정구역명을 살펴보면 이 도시는 대도시권(metropolitan area), 시(municipal corporation) 및 군(municipality), 동(ward)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 먼저 케랄라주에는 14개의 지구(district)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에르나쿨람지구다. 꼬치 대도시권은 에르나쿨람지구 안에서 가장 도시화된 지역이며, 케랄라주의 대도시권들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꼬치 대도시권은 1개의 시, 즉 꼬치시와 13개 군으로 구성되며, 도심에 해당하는 꼬치시는 다시 74개의 동으로 나뉜다. 이들 중 에르나쿨람의 북부동·중앙동·남부동, 마판체리동, 포트꼬치동 등이 영국식민지 시대부터 존재하던 도시 지역이다. 덧붙여 대코친(Greater Cochin)은 꼬치 대도시권과 그 주변의 시골 및 섬 등을 아우르는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2. 교통 및 정보통신의 연결망 구축과 물신송배

<교통 연결망 구축>

꼬치 대도시권의 공간변화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들 중 하나는 광범위한 대중교통망 구축이다. 꼬치메트로 건설사업과 CSM은 이러한 교통 연결망을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먼저 꼬치메트로 건설공사가 2013년 본격화되었고, 2017년 6월 케랄라주에서 초고속 전철이 처음으로 운행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현재 꼬치 대도시권 곳곳에서 메트로 노선을 확장하는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꼬치메트로로는 도심과 주변지역 사이의 이동 속도를 단축시켜 줄 뿐 아니라, 악천후, 교통체증, 파업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정적이고도 빠른 이동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참고로 꼬치메트로 노조는 다른 대중교통 노조와 달리 파업을 할 수 없다.

다음으로 CSM은 섬들 사이의 빠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6월 모디 수상이 국책사업의 하나로 스마트시티미션(Smart Cities Mission)을 공표하였고, 5단계에 걸쳐서 총 100개의 도시를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 사업의 최우선 목적은 인도 전역에 ‘스마트’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인데, 여기서 스마트란 높은 기술 수준의 도시기반시설을 의미한다. 2016년 1월 사업의 첫 단계 대상지로 총 20개 도시가 선정되었고, 꼬치 대도시권이 이에 포함되었다. 이어서 코친스마트미션회사(Cochin Smart Mission Limited, 이하 CSML)가 설립되었는데, CSML의 주요 과제는 꼬치 대도시권을 수상 메트로 시스템을 가진 첫 번째 항구도시로 만드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CSML은 섬들 사이를 연결하는 고속전동여객선을 운행함으로써 이동성을 증진시키는 데 주요 목적을 둔다.

<광범위한 정보통신 연결망의 구축>

이 도시의 공간변화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정보통신 연결망의 구축이다. CSML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앙통제센터, 즉 ‘IC-4’(Integrated 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 Center)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정부기관들의 통합 및 관리를 꾀하고 있다. IC-4는 도로 곳곳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수도 및 전기 계량기를 모니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요컨대 CSML은 케랄라의 경찰서, 소방서, 주립전기회사 등을 통합 및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특별경제구역에 집중되는 정보 및 운송 인프라>

그뿐 아니라 꼬치 대도시권에서는 또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인 SCK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11년 주정부의 주도하에 시작되었다. 사업 주체는 케랄라 주정부와 두바이

홀딩스(Dubai Holdings)며, 합자회사의 지분은 전자가 16%, 후자가 84%를 각각 보유한다. 이 사업은 까담브라야르(Kadambrayar)강 주변의 땅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식기반 사업을 위한 다양한 세금혜택, 정보 및 운송 관련 인프라, 교육시설, 업무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깨랄라 주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무역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SCK 안에 건설된 첫 번째 IT빌딩은 2016년 완공된 'SCK-01'이며, 그 밖에도 다수의 IT빌딩들이 그 안에 들어서고 있다.

<엠지로드 풍경에 드러나는 급증하는 소비력>

한편 코치시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엠지로드(M. G. Road)의 거리풍경은 이 도시에서 소비력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엠지로드란 에르나쿨람 북부동과 남부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간선도로의 이름이다. 이 거리의 풍경은 최근 10년 사이에 크게 변화하였다. 2010년대 초반까지도 1층에는 작은 상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으며, 2층 이상에서는 작은 창문들과 발코니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 거리는 4층 이상의 대형 쇼핑몰들과 그것을 덮고 있는 쇼윈도 및 광고판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사리(sari) 쇼핑몰, 우뜨사브



자료: 저자 제공(2019.1.31. 촬영)

보석 쇼핑몰, 말라바르



자료: 저자 제공(2019.2.22. 촬영)

현재 엠지로드에서는 실크 사리와 보석류를 판매하는 대규모 쇼핑몰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보석 쇼핑몰의 경우에는 남쪽부터 ‘비마’ ‘알라빠뜨주얼리’ ‘말라바르’ ‘춘가트’ ‘깔리얀’ ‘알라빠뜨아케이드’ ‘조스코’ ‘알라빠뜨헤리티지’ 등이 위치한다. 다음으로 고급 사리를 취급하는 대형 쇼핑몰로는 ‘밀란’ ‘자야락슈미’ ‘깔라니께탄’ ‘우뜨사브’ ‘쨤나이실크스’ ‘시맛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형 쇼핑몰들은 대부분 인도 곳곳에 수많은 체인점을 두고 있는 유명 브랜드의 영업장이다. 그 밖에 세계적 체인망을 갖는 지상 7층의 ‘이비스 호텔’, 수입품들로 가득 찬 지상 6층의 복합 쇼핑몰 ‘센터스퀘어’도 이 거리에 새롭게 등장하였다. 필자는 코치시의 한 여대생에게 작은 상점과 대형 쇼핑몰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대생은 아래와 같이, 쇼핑몰은 비싼 제품들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브랜드명은 상징적 가치를 지닌다고 대답하였다.

“큰 사리 쇼핑몰은 인기 있고 비싼 제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처럼 쇼핑몰들은 특정 계급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꼭 유명 브랜드의 쇼핑몰이라고 물건의 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소규모 사리 상점에서도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요. 큰 쇼핑몰의 이용에는 자부심과 선호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엠지로드의 대형 쇼핑몰들은 상대적으로 값비싼 물건들을 취급하며, 물리적으로는 열고 닫을 수 있는 창문들 대신에 커다란 쇼윈도나 광고판을 갖는다. 즉 ‘소비의 방주’로 표현되는 백화점처럼 대형화 및 폐쇄성을 특징으로 갖는다. 이러한 쇼핑몰들의 규모 및 수의 확대는 엠지로드의 풍경을 전면적으로 바꿔 놓고 있으며, 동시에 이 도시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소비력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나가며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에서는 신흥경제국들의 경제성장 원동력을 대도시화란 공간역학에서 찾으며, 대도시화의 규모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신경제지리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인구 및 생산활동의 집중, 이동속도의 단축 등에 의해 획득된 대도시의 규모는 제2의 자연으로서 ‘자기-강화적 생산성’을 가지며, 이에 기초한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공간적 불균등과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즉 대도시화란 특정지역에 쏠리는 부와 기회를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정치학자들에 의해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화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신경지리학자들은 대도시화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재분배(redistribution)뿐 아니라 사전분배(predistribution)가 원활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도시화가 고도화된 지역에서는 반드시 도시빈민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케랄라가 겪고 있는 공간변화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인도의 중앙정부는 1996년부터 경제자유화, 신자유주의 등을 정책노선으로 채택하였으며, 코치 대도시권도 그러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추진된 코치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대중교통망’ 확보를 통해 도시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산업단지’의 건설을 통해 세계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도시의 겉모양을 화려하고 활기차게 만들지만, 동시에 공간적 불균등 또한 심화시키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때 급진적 토지개혁, 활발한 대중교육, 전투적인 노조활동 등으로 유명했던 케랄라주가, 선진국들이 겪었던 경제성장과 사회갈등을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성장과 불균등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경제성장을 이룬 이후에 그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성장의 속도를 늦춤으로써 불균등을 완화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독특한 정치경제적 특징들을 갖는 다문화사회인 케랄라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도시화를 분석하는 작업은, 공간변화와 하위집단들의 삶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련성을 탐구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자 프로필

김영진

인도 델리대학교에서 2014년 인류학 박사를 취득했고 2015년 박사논문을 번역하여 [델리의 도시공간을 걸으며: 거리공간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간행하였다. 같은 해 공동번역서인 [인도 100년을 돌아보다]를 출간했다. 최근에는 인도 남서부에 위치한 케랄라주의 도시공간 및 여성조직에 대한 연구논문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현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강사로 재직 중이다.

인도 인문 포커스, India Humanities FOCUS / 제9호